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예산 확대 없는 희망고문”...복지부 “개선 노력”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제도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오히려 상실감만 커졌다는 것이 중론

이다. 광주 · 전남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장애계에서 요구해왔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학적 기준의 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영역을 시작으로, 2020년 주거 이동, 2022년 소득 고용 분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문 투성’이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어마어마한데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 희망고문”이라면서 ‘진짜’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활동지원 예산 확대 ▲관정 전달체계에서의 권리 보장 등의 과제를 내세웠다.

그는 또 “장애인 복지욕구의 1순위가, 등급제 폐지에 있어 핵심인 ‘소득보장’은 대상자의 사각지대 문제”라고 말했다.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도 “예산액수의 규모만 보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19년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서비스 수가 인상 확대 말고는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전제조건이자 필수요건”이라고 피력했다.



장애인센터 입소자 대상 ‘모의 사전투표체험교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1일과 1월 1일 이틀간에 걸쳐 동백원과 다솜누리장애인센터 입소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만 별도의 신고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유권자가 많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등산 정상개방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전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에 참석해 무등산 장물재에서 출발해 지왕봉 정상에 올라 광주시장애인 재활협회 회원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 의약품 사용법 읽어드려요”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전제품 주의사항 등을 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각으로만 제공됐던 의약품별 용법, 용량, 주의사항이나 가전제품 작동방법, 스피커,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시각장애인용 맞춤형으로 메뉴얼을 만들어 모바일 앱, 웹사이트,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음성 서비스한다.

예를 들어 ‘감기약은 성인 1회 1정, 1일 3회 식후 30분 복용’, ‘세탁은 왼쪽 하단 세 개 버튼 중 가운데 버튼’ 등의 방식으로 안내한다.

신봉우 기자

인권위 “발달장애인도 일반승마체험 참여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차별이라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10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이던 발달장애인 A군은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지원하고 B군청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지원했다. 그러나 A군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가 없었다. A군은 이 프로그램에서 4회를 문제 없이 이수했지만, 기관은 뒤늦게 장애인임을 알아내고 참여를 막았다.

기관측은 “피해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없었던 일반승마체험을 신청했다”며 “학생의 안전과 부작용을 고려해 인근의 재활승마체험장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4회까지 문제없이 승마교육을 받긴 했어도 점점 교육수준이 높아

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들이 수강하는 ‘재활승마’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애학생이 ‘일반승마’를 수강할 수 없지는 않다고 봤다. 아울러 A군이 참여하려고 했던 학생승마체험은 안전장구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